

만삭에 맨발·겹에 질린 얼굴... 73년 전 위안부 영상 충격·분노

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2년여 추적 끝 미국서 첫 발굴

18초짜리 영상... 1944년 중국 운남성서 포로 7명 촬영

1944년 일본군 위안부(한국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7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금까지 중국인 위안부를 찍은 영상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한국인 위안부는 문서·사진과 증언만이 참상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돼왔다. 영상은 없었다.

이번에 영상이 처음으로 발굴되면서 일본군이 중국 위안부를 운영했다는 입증 자료가 더욱 탄탄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교수팀은 5일 중국 운남성 송산(松山)에 포로로 잡혀있던 위안부 7명을 촬영한 18초짜리 흑백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이 있을 것이라 단서를 잡은 연구팀이 2년간 추적에 들어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소장된 필름 수백 통을 일일이 뒤진 끝에 찾아낸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 미·중 연합군 산하 제8군 사령부 참모장교인 신키가 대위(중국어

장교)로 추정되는 남성이 위안부 1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머지 여성들은 초조하고 두려운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다. 폭속인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여성도 있다. 모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서 있다.

영상이 촬영된 1944년 9월 8일 직후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치닫고, 일본군이 점령한 중국 송산을 미·중 연합군이 탈환한 시기다. 이때 일본군 위안부로 있던 24명 중 10명이 생존해 연합군 포로로 잡혔다.

지진 표정으로 기댄 만삭의 여인 등 당시 미·중 연합군 포로가 된 위안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 4장은 세상에 공개돼 지금까지 참상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2000년에는 고(故) 박영심 할머니가 사진 속 만삭 여인이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 담긴 여인들은 사

진 속 인물과 얼굴, 옷차림이 같다. 한국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근거다. 고 박영심 할머니는 사산한 뒤 중국군의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는 보이지 않는다.

연구팀은 영상 속 한국인 위안부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미·중 연합군이 포로 심문 과정에서 만든 '조선인 위안부 명부'에 적혀있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명부에는 한국 이름과 당시 나이, 고향이 나온다. 박영심 할머니 이름도 표기돼 있다. 연구팀은 위안부 영상을 촬영한 미군 병장이 함께 찍은 다른 영상도 공개했다. 중국 용릉에 있는 그랜드 호텔을 담은 것으로, 일본군 위안소로 사용된 곳이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는 38명만 생존해 있다.

영상 발굴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태 정부가 위안부 연구 관련 예산을 끊거나 삭감하자 서울시가 서울대 연구팀에 예산을 지원해 발굴 사업을 해왔다.

/연합뉴스



5일 서울시청에서 강성현 서울대 교수가 1944년 미군 사진병이 촬영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흑백 영상'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7년만에 도시가스비 인상

가구당 年 800원 추가 부담

80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광주시가 7년 만에 도시가스 공급비용(소매요금)을 인상했다. 국내 다른 광역자치체들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인상해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신규 배관 투자를 통해 도심 외곽의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가격이 오르면 한 가구당 1년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소비자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안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3.49% 인하 조정한 이후 최근 7년간 동결했었다.

이번 조정에 앞서 광주시는 회계법인의 용역 등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산출했다. 국내 도시가스 공급비율 중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사업자 측이 요구한 임금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반영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요금을 줄이고, 안전 점검 및 도시가스 절거 출장비용을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고 공급비용에 반영해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에 따르면 일반 도시가스요금은 1㎡당 현재 86.65원에서 1.52원 오른 88.17원으로 1.76% 인상된다. 이를 광주시

역 평균 도시 가스 사용가구를 기준으로 나눈면 세대당 한 달에 67원, 일 년 804원 가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이번 인상을 통해 걷어지는 8억5000만원가량을 광주 도시 외곽의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에 배관을 설치해 주는 사업에 쓸 계획이다. 광주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97.65%로 전국 2번째로 높다. 미공급지역은 대부분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늘릴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행

지원서에 학력·사진 등 금지

주요 공공기관 분야별 채용계획

앞으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신체조건, 학력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본격 시행된다. 또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 질문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처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이달중 332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4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뒤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1만여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는 학력을 비롯해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와 체중 등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진다. 사진 부착도 금지된다.

다만 신체조건이나 학력이 특정 업무(경비·연구직)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재가 허용된다. 또 서류전형 없이 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 응시자 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하반기 1만여명 채용 계획



자료/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최종학교 소재지(학교명 제외)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자격·경력 등의 항목도 적어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거친 뒤 시행되는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고, 발표나 토론 방식의 면접을 통해 업무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력 채용시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방안'을 마련,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숲속 '판옥선 집'서 쉬어가고

거북선·남도소리 테마 진도 국립휴양림 14일 개장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 승전지이자 '진도아리랑'의 본거지인 진도에 거북선과 남도소리 등을 테마로 한 국립자연휴양림이 문을 연다.

산림청은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에 조성한 국립 진도자연휴양림을 오는 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개장식은 11일이다.

진도 휴양림은 2013년부터 사업비 86억원을 들여 만든 42번째 국립자연휴양림이다. 산림과 바다가 어우러진 '도시형 자연휴양림'으로 관심을 끈다.

진도의 역사·문화·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산림

휴양 공간으로 조성됐다. 거북선 모양의 산림문화휴양관(1동 14실), 조선 수군의 전투선인 판옥선 모양을 본 뜬 '숲속의 집'(8동 8실)을 포함해 남도소리 체험관(1동), 방문자 안내센터, 잔디광장, 산책로, 다목적 운동장 등을 갖췄다.

조선 시대 무과시험을 재현한 격구·활쏘기 등의 전통놀이와 남도소리 체험, 명랑대첩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약은 오는 10일부터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누리집(<http://www.huyang.go.kr>)에서 할 수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멸종위기 삼악어 보러가자

함평 생태공원 2마리 입식

함평군 양서파총류생태공원에 멸종위기 동물인 삼악어 2마리가 입식됐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양서파총류생태공원 별관에 입식한 삼악어 2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으로, 성장하면 길이가 3~4m에 이르며 파총류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알려졌다. 새끼 뱀 황토색에 검은 반점이 있고, 자라면서 올리브그린 색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삼(siam)은 태국 왕국의 옛날 이름으로, 삼악어는 주로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강이나 늪지에 서식한다. 야생에서는 현재 환경 파괴와 수렵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함평=황은혁기자 hwang@

이번에 입식한 삼악어는 5년생으로 몸길이는 1.2m 내외다.

이진영 산림공원사업소장은 "국내에선 보기 힘든 삼악어를 관광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국내 최초의 양서파총류생태공원으로서 입지를 더욱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양서파총류생태공원은 부지 8만5000㎡, 연면적 267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국내 최대 양서파총류 전문전시관이다. 아나콘다와 킹코브라 등 총 89종 690여 마리의 양서·파총류를 전시하고 있다. 1층은 한국관, 2층은 사막관과 정글관, 별관으로 아나콘다관과 거북관을 운영하고 있다. /함평=황은혁기자 hwang@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송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용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부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6000만원

문의 010-6496-2525

